

#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연구

(국립산림과학원 공동연구, 1968 ~ 계속)

권건형, 양근주, 오준식, 정윤미, 고광섭, 이민섭

## 요 약

2014년도 산림병해충 예찰연구결과,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광주시가 총조사목 7,434건중 847건으로 재선충 감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양주, 성남 순으로 조사되었다. 솔잎혹파리 충영형성율은 9.5%로 전년대비 2.7% 감소하였으며, 천적 기생율은 23.9%로 2.3% 증가하였다. 미국흰불나방 발생량 조사에서는 이천, 화성에서만 발생하여 피해증상을 나타냈다. 버즘나무방패벌레의 밀도조사에서는 안성에서만 엽당 15.3마리의 높은밀도를 보였으며 용인은 엽당 1.4마리 및 과주에서는 미발생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.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의 발생추이는 조사 지역 모두 전년대비 2%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. 특정지역 병해충 조사결과는 2014년도 기상조건이 건조한 경향을 보여 병해보다는 충해의 피해가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으며, 일부지역에서 건조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.

## I. 서 론

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는 주요 산림병해충들의 발생시기 및 발생량 등을 파악하여 방제업무에 활용하며 주요 관광사적지, 국립공원 및 국도도로변의 가로수 등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들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, 건전한 산림유지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외래침입해충들의 생태를 구명하여 방제체계 확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